

한국전력공사

레바논 현지법인 개설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16일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한준호 사장, 사미르 도밋 레바논 엔지니어협회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 및 현지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바논 정부로부터 수주한 디아르아마르(Deir-Amar) 및 자라니(Zahrani)발전소 운영을 위한 '한전 레바논 현지법인' 개소식을 가졌다.

한전이 수주한 디아르아마르 및 자라니 발전소 870MW(시설용량 각 435MW)의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운영권 총 계약금액은 약 8,550만 달러이며, 이로서 한전은 향후 5년간 전체 레바논 발전량의 47%를 담당하고 있는 2개의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존의 필리핀, 중국에서의 발전사업에 이어 레바논 발전분야에 진출한 한전은 본 사업을 위한 레바논 현지법인 개설로 중동지역 발전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향후 레바논 발전분야 민영화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몽골 및 아제르바이잔과 전력산업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몽골 및 중앙아시아 전력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허기술 무상이전 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주)는 4월 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남호기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석원산업 등 9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보유 특허기술 무상이전 협약 체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직원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서, 지난 3월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아 중소기업이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을 5년 동안 통상실시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기술사용료는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전액 무상으로 이전키로 했다.

남호기 기술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 3호기 최초 점화 성공적 완수

한국남부발전(주)는 지난 4월 25일 발전소 내 중앙제어실에서 김상갑 사장 및 관련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제주화력 3호기 최초 점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전소 건설의 주요 공정인 발전개시를 대비하여 시행된 보일러 점화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후속 공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 과정은 착공→드림상량→수압시험→점화→발전개시→상업운전 순이며, 발전개시는 금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6월 건설을 시작한 남제주화력 3, 4호기는 총 건설비 3천379억원을 투자하여 20만kW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남제주화력 3호기는 오는 9월, 4호기는 2007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남제주화력 3, 4호기는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건설이 지연되었으나 한국남부발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준공일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기술용역은 현대엔지니어링, 주기기는 두산중공업, 시공은 포스코 건설과 현대중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남제주화력 3, 4호기는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2007년 6월과 12월에 각각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 중인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조기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사전준비 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3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신울진 1·2호기 사전준비 용역을 수주하였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1·2(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계획의 종합설계용역 사전준비 형태로, 예비부지배치, 부지기분배치, 냉각해수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등의 설계 준비업무와 측량 및 수온분포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6년 4월 3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약 14개월이다.

이번 용역수주는 비록 그 계약규모(부가세포함 19.2억원)는 작지만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는 첫 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에 따르면 금년 8월경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 공급제의요청서를 한국전력기술에 발송하여 제의서 제출 및 계약 협상을 통해 2007년 5월경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참고로, 신울진원자력 1·2호기는 신고리/신월성 1·2호기 등 선행호기와는 달리 종합설계용역을 포함한 설계부분에 대한 계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NSSS/TG 등 주기기공급 계약은 실시계획 승인(2008년 10월 예정)후 체결될 예정이다.

한전기공(주)

해외사업 다각화 발전소 정비공사·기술용역 수출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기공(주)는 해외 사업 진출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전기공은 최근 5년간 81건의 해외사업을 수주, 75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1년 9건이던 해외사업은 2005년 25건으로 주로 발전소 정비공사나 기술용역을 수출하고 있다. 이 결과 2001년 73억2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2005년 174억87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238% 증가했다.

한전기공은 최근 해외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인도에 3개 발전소 운전 및 정비사업에 진출했다. 필리핀 일리한 복합화력 정비공사 및 민자발전소, 전력청 소유 발전소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발전설비 정비 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최대 발전설비 정비회사인 TNB REMACO사와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내 국영 및 민자발전소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합의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담만에서 SAECO사와 기술협력계약(TSA)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이번 SAECO사와의 기술협력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중부발전(주)

양양 양수발전소 제2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국중부발전(주)는 지난 4월 27일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정장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양수 제2호기 상업운전 개시 기념식을 가졌다.

정장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최고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양양양수발전소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 건설되는 설비용량 100만kW(25만kW×4기) 규모의 국내 최대의 양수발전소로서 '06년 1월에 1호기 준공에 이어 3호기는 '06년 6월, 4호기는 '06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소는 전력계통상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며 운전 기동성이 타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보다 우수하여 광역정전 등의 돌발적인 사고나 급격한 부하 변동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전 1호기 국내 최다 한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고리원전 1호기가 국내 최다인 6번째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를 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최근 2005년 5월 10일부터 2006년 5월 5일까지 361일 안전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 One Cycle Trouble Free)이란 연료교체 후 다음 연료교체 까지 고장없이 연속운전을 하는 것으로 원전관리, 운영 능력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난 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가 OCTF를 달성하기는 이번이 6번째로 고리 3호기, 4호기와 함께 최다 기록이다. 국내원전 전체로는 통산 57회에 달해 한국의 원전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한주기 동안 52.1억k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유연탄 189만톤 또는 중유 770만 배럴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일조해 유연탄 사용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만톤이나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표준형 개량핵연료 'PLUS7' 첫 상용 공급

핵연료 설계·제조 전문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지난 4월 11일 1999년부터 7년에 걸쳐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약 200억원(정부지원금 95억원 포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용 개량핵연료를 개발하고 1회 교체용 첫 제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출하했다.

한국표준형 원전용 개량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에 첫 상용 공급됨으로써 연간 80억원의 핵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개량핵연료는 기존연료에 비해 안전성이 약 10% 이상 증진되고 연소성능을 개선하여 핵연료 경제성을 높이는 등 기존연료 대비 7가지 성능을 개선하여 PLUS 7이라고 명명하였다.

아울러 한전원자력연료는 PLUS 7연료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제조하여 차세대 연료 개발을 독자기술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부품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PLUS 7 최초 장전 기념행사가 지난 5월 16일 양창국 사장과 천주영 울진원자력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 제2발전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서부발전(주)

경영혁신 연찬회 개최 혁신성과 이행 협약

한국서부발전(주) 경영혁신실은 지난 5월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경영혁신 연찬회”를 개최하고 사장과 본사 처(실)장 및 사업소장 간의 2006년도 혁신성과 이행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서부발전은 금년 경영혁신 방향을 “Convergence Innovation(총체적 경영혁신)”으로 정하고 경영전략과 실행계획의 Alignment를 강화하여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혁신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영혁신팀에서 발표한 전사 9개 분야 27대 혁신전략에 따르면 연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혁신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종신 사장은 처(실)장의 혁신전략과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를 보고받고 처(실)장과의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진리가 단순하듯 아무리 잘 세워진 계획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목적하는 혁신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부문간 연계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동서발전(주)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우수상 수상

전 발전소의 공원을 추진 중인 한국동서발전(주)은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경진대회에서 조경정책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5월 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경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조경학회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동서발전은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 응모하여 1차 서류제출,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자격이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돼 조경과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대거 참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주최 측은 동서발전의 특화된 사업인 ‘발전소 공원화 5개년 계획’을 높이 평가, 공기업 최초이자 발전회사로는 유일하게 조경 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여했다.

한편,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발전소 건설로 손상된 자연을 복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환경정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일본 전력계통이용협의회와 기술협력 협약 체결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일본 전력계통이용협의회(ESCJ)와 한일 양국간 상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계통운영기술 협력, 전력산업 규제완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가파견 등 기술인력 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일본의 선진 전력계통 운영기술과 신뢰도 평가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일본은 다수의 연계계통과 HVDC를 운영하고 있어 제주~해남간 연계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사는 또 계통전문가의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간 기술협력 강화는 물론 국제협력체제 구축으로 지구온난화문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전력계통 신뢰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계통전문가 상호방문 등 기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KDN(주)

전력IT연구원 확대 개편 연구개발사업 강화

한전KDN(주)는 전력IT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전력IT 연구개발(R&D)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전력산업이 IT신기술과 접목해 진화하는 것을 선도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력IT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이다.

한전KDN은 전력IT 핵심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해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전력IT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장기 비전을 세웠다. 전력IT 전문 R&D 강화와 세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자체연구소 ‘전력IT연구원’을 1개팀 4연구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전력연구원은 우회곤 원장을 수장으로 연구기획팀·정보기술·정보통신·송변전IT·영배IT연구그룹으로 구분하고, 업무를 세분화해 다양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전KDN은 5대 세부 추진전략으로 전력IT 수행체계 정착, 연구개발물의 사업화 결실 확대, 전력계통별 사업기반 조성, 중장기 R&D 성장지표 개발, 연구 프로세서의 혁신과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고객중심 경영 실천 사회공헌 활동 선도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 위해 고객중심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2004년 사장공모로 취임한 송인회 사장은 올해를 ‘업무 선진화 전략 시행 첫 해’로 정하고, 그 원동력인 “ESV 2010”의 실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혁신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 청렴도와 고객만족도를 포함해 정부경영 평가는 물론 외부 민간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와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고객중심경영”의 실천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는 고객의 고충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스피드콜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점검 결과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업무 리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GS EPS(주)

부곡발전소에서 2호기 발전소 파일 향타식 거행

GS EPS(주)는 지난 4월 21일 부곡발전소에서 2호기 발전소 파일 향타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회장과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사외이사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GS EPS가 추진중인 2호기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후, 1호기 발전소 현장 및 2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등 현지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전소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행사 참석자들은 2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GS EPS는 지난 3월 22일 EURO Money가 선정하는 『Deal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관련 잡지 EURO Money는 매년 지역별로 엄선하여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금번 시상식에서는 2005년 시행된 76개의 Project Financing 중 Petrochemical, Transport, Oil&Gas, Leisure, Mining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Sponsor 및 Leading Bank에게 수상하였으며, GS EPS는 Power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전산업개발(주)

서부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SG 3000운동' 추진

한전산업개발(주) 서부발전사업단은 지난 5월 29일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매출 3000억 달성을 목표로 뛰자는 'SG 3000 운동'의 추진과 관련해 서부발전사업단 예하 각 사업소장 및 운영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SG 3000 운동 서부발전사업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천사업소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영동 단장은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직원이 합심 단결해 한전산업의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수주활동도 중요하지만, 설비 무사고 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예하 사업소 참석자들은 각 사업소의 실정에 맞춰 자체 수립한 목표와 실천계획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기존사업의 안정유지와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소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했으며, 토론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이 도출되었다.

또한 사업소의 잘한 일, 잘못 한 일을 되짚어 자



신의 사업소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기 위한 모색의 시간을 갖고, 향후 서부발전사업단의 업무방향 등을 협의했다.

GS파워(주)

'Power Leadership Team' 운영 조직활성화 촉진

GS파워(주)는 최근 과장급 이하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제1기 Power Leadership Team'을 구성하였다.

'Power Leadership Team'은 기존의 변화관리자와 조직문화 코디네이터를 통합하여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이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활성화 등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제 수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GS파워는 지난 4월말 안양 및 부천열병합 발전소 강당에서 총 8차에 걸쳐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성장전략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GS파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동력을 발굴하고 향후 사업의 사업진행을 전략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부문 및 팀/부 단위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SK(주)

印尼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합작법인 설립

SK(주)는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해외 고급 유틸리티 시장에서 독주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 세계 고급 유틸리티(그룹3)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는 고급 유틸리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자사의 세 번째 유틸리티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

공장설립을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SK 신현철 사장, 유정준 전무를 비롯해 아리 소마르노 페르타미나 사장 등 양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조인식을 가졌다.

이 법인의 총 자본금은 1억7천5백만 달러 규모로 자카르타에 설립된다. 이 합작법인은 현지공장의 건설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SK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해외시장의 마케팅 및 판매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건설 예정인 유틸리티공장은 2008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국내 1,2차 기유공장과 비슷한 규모인 하루

7,250배럴이다. 국내 정유업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품 생산시 SK의 그룹 3 기유 1일 생산량은 2만3천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료·유틸리티 및 자동차·환경 전문가 협의회 개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 27일 연구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유사, 자동차사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료·유틸리티/자동차/환경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현황 및 추가요구사항, 일본의 바이오연료 동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동차·연료기술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화석연료 소비감소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대체연료에 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향후 본 전문가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공동대응을 통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입안시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등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주)

고급휘발유 브랜드네임 'Kixx Prime' 본격 출시

GS칼텍스(주)는 지난 4월 6일부터 고급휘발유 브랜드네임을 “Kixx Prime(키스 프라임)”으로 발표하고, 고객 이름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GS칼텍스는 향후 고급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를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의 60개소에서 4월 120개소까지 늘리고 “Kixx Prime”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고급휘발유 체험권, 고급휘발유 고객대상 고급 판촉물 제공 등 푸짐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주유소에 들어오는 고객의 눈에 잘 보이도록 고급휘발유 전용 Sign을 설치해 안내를 돕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주는 오렌지 컬러 ‘Prime Zone(프라임 존)’을 주유소 내에 설치, ‘Prime Zone’을 방문하는 고객은 고품격의 차별화된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Kixx Prime은 100.2이상의 고옥탄가 제품으로, 엔진의 이상발화를 막아 엔진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속성 향상제가 들어 있어 강력한 출력을 느끼게 해 주며 소음과 차량 떨림을 줄여주고 엔진세정제가 25% 증가되어 있어 새 차의 성능을 더욱 오래도록 유지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출고되는 메르세



데스-벤츠를 비롯한 많은 고급 신차의 출고시 전용 고급휘발유 브랜드로 선정되어 현재 인기리에 공급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카스피 해상 이남광구 지분인수 양해각서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5월 1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사인 소카르(SOCAR)사와 카스피 해상에 위치한 이남(INAM) 광구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MOU 체결 이후 기술평가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유망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SOCAR사 보유지분 중 일부를 매입하는 지분참여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구의 지분은 SOCAR사가 50%를 보유하고 있고 운영권자인 BP가 25%, 셸(Shell)이 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사업대상인 INAM 탐사광구는 아제르바이잔령 카스피해 중부에 위치하며 매장량이 약 20억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광구로서 BP가 운영권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이미 참여 중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아제르바이잔 해상광구에 대한 사업참여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제2의 중동’이라 불리는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 탐사, 개발사업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세계 6대 주요 산유지역의 하나인 카스피해 지역을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잠발광구 등 2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랄해 광구 등 2개 사업에 각각 참여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S-Oil(주)

고급휘발유 브랜드 '에쓰-가솔린 프리미엄' 출시

S-Oil(주)는 지난 4월 24일 고급휘발유 브랜드 「에쓰-가솔린 프리미엄(S♥Gasoline Premium)」을 발표하고, 전국의 30여개 계열주 유소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급휘발유 「에쓰-가솔린 프리미엄」은 높은 출력 증강 효과로 탁월한 가속력과 엔진의 미세한 노킹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편안하고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엔진내부의 불순물을 감소시켜 엔진수명을 연장하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물론 황·벤젠 등 공해유발물질을 50% 이상 저감시킨 고품질의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S-Oil 관계자는 “1994년 국내 최초로 고급휘발유 수준인 옥탄가 97의 「97휘발유」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옥탄가가 가장 높은 보통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는 등 고품질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에 앞장서 왔다”며, “금번 고급휘발유 「에쓰-가솔린 프리미엄」 출시는 S-Oil의 고품질 이미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마케팅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볼아이콘으로 쓰인 “♥”는 S-Oil의 대표적 슬로건인 “Car love S-Oil”의 그래픽모티브에서 차용한 것으로 S-Oil의 브랜드이미지를 패밀리브랜드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디자인이다.



현대오일뱅크(주)

방향족 60만톤 및 큐멘 30만톤 생산시설 증설

현대오일뱅크(주)는 지난 5월 9일 스페인의 정유 및 석유화학사인 CEPSA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인근에 60만톤 규모의 방향족 및 큐멘 30만톤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47만톤 규모의 방향족 시설에 신설 예정인 방향족 60만톤, 큐멘 30만톤의 생산시설을 확보, 137만톤의 방향족 및 큐멘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와 CEPSA는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산 공장 인근에 BTX등 방향족 생산설비를 추가로 증설하기 위한 동등 지분(50:50)의 조인트 벤처(Joint-venture)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충될 현대오일뱅크의 방향족 생산시설은 최대 연산 60만톤의 파라자일렌(P-Xylene), 연산 30만톤의 큐멘(Cumene)등의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연산 137만톤 이상의 기초 방향족 제품과 큐멘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사 EHSQ 캐치프레이즈 선포 안전실천 결의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사는 지난 4월 27일 자회사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 없는 일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지사 EHSQ 캐치프레이즈 선포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가스공사 경북지사는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지난 2001년 8월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한 이후 동감천관리소 관음관리소의 신·증설, 배관이설, 포항 LCNG 복합충전소 건설 등 크고 작은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경북지사가 이날 전체 구성원의 안전실천을 새롭게 결의한 것은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에 목적이 있음은 물론 안전이 공사와 가스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순태 교수(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기술지도원)의 무재해 및 산업안전에 관한 강의로 시작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함께 EHSQ 경영비전 및 경영방침의 이해와 관련 절차 준수,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안전보호구 착용, EHSQ 수칙 위반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시정, 동료의 안전을 위한 최



선의 노력경주, 안전관리자의 안전지시 적극 수용, 보고체계 유지 및 즉각적 응급조치 등 6가지의 안전준수 항목을 선선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청주대와 에너지 기술개발 등 산학 협력협약 체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5월 8일 청주대학교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측은 앞으로 학술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활동과 경영, 기술, 개발 협력사업 그리고 주요 사업 및 학술정보의 상호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을러 가스기술공사는 청주대학교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국 유학생을 보유한 학교라는 점을 활용해 중국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대학교는 1만13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명문사학으로 6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편, 이날 신종현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청주대학교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학교 대강당에서 '기업의 실상과 이에 대한 대책 및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수립 4대 비전 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예방에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고, 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0년간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향후 10년 이내에 가스안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였다.

중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가스사고 건수를 일본수준으로 억제시키고, 대형 가스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Fail Safe시스템 구축”, “자율안전관리 동기부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일소”, “KGS기능 선진화” 등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4대 비전체계를 설정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된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은 현재 53개 과제 중 21개 과제를 추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중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도시가스 보일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가스보일러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를 개발 보급하여 용기를 이용한 고의 LPG사고를 근원



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제대학교와 산·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는 지난 3월 28일 인제대학교(총장 성장모)와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수자원 재해관리 학술정보, 교육과정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산·학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MOU)의 체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제대학교는 학술정보, 교육과정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물관련 공공정책 개발 및 현안과제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정보자료 및 시설물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방화·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발전을 도모하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석탄공사

노사협력 생산목표 달성 사업소장 회의 개최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4월 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지엽 사장 주재로 2006년도 제1차 사업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지엽 사장은 2005년도 내부 경영평가 결과 광업소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도계광업소 서명길 소장에게 우수기와 격려금을 수여하였다.

석탄공사 백창현 기획처장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사업소장들의 업무현황 보고로 이어진 이번 회의는 특히 현안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과 광업소별 중장기 경영계획에 대해 집중 토의를 했다.

또한, 권혁수 기획이사 및 김영철 관리이사, 최서남 기술이사 등은 경영평가 수검 및 사후관리 철저, 책임경영 등 종합경영 수검준비 철저, 탄질향상 노력, 고정자산 관리철저, 무연탄 출하관리 철저, 생산·굴진 및 능률 연간 목표 달성, 일하는 분위기 정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장 분위기 조성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사업소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경영합리화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몽골 자원개발 사업 추진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동(구리)개발사업에 진출한다.

광진공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북서쪽 약 230km지점의 에르데넛 동광개발을 위해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51%의 지분(나머지 49%는 몽골 에르데넛사)을 인수기로 했다. 한국측 컨소시엄 지분은 광진공 49%, 삼성물산 51%이다.

이번 사업의 총 투자비는 약 1억달러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5,100만 달러를 투자한다. 광진공은 우선 1단계로 삼성물산과 300만 달러를 공동 분담해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매장량은 약 12억3,200만톤으로 상당한 양에 속하며 양호한 인프라 구축과 노천 개발 가능성 등으로 개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연간 전기동 3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광진공 단독으로 캐나다 다국적 광업전문회사인 아이반호사와 유망 프로젝트 공동 탐사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기로 하는 등 몽골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모색한다. 캐나다 국적의 회사인 아이반호사는 현재 몽골, 베트남 등에 동, 금 등 많은 비철금속 광구를 보유하고 있다.



(주)효성

자사 변압기 美 컨설팅사 ‘고객구매가치상’ 수상

(주)효성은 지난 5월 3일 자사 변압기가 미국 프 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사가 선정한 북미지역 ‘고객 구매가치 부문상(Best Bang for the Buck)’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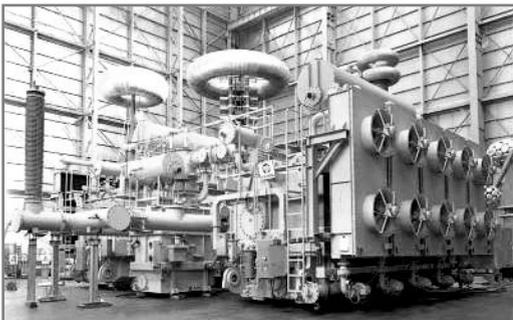
이 상은 매년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 상으로 가격, 품질,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효성은 지난 97년 미국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맞춤 설계와 차별화된 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공략 해 왔다.

효성은 이번 수상으로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경쟁이 치열한 북미시장에서 메이저 변압기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전력기기 업체가 경쟁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와 요구수준이 타지역보다 높다”며 “앞 으로 북미지역의 고객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수주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25개 지점에서 1,000여명의 시장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분석 및 컨설



팅 업체이다. 매해 주요 산업분야 고객들과 인터뷰 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고객가치상을 수여 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06년도 상반기 지역난방 사용자 설명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지난 4월 27일 분당 소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기계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06년 상 반기 지역난방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판형 열교환기 유지관리, 자동제 어시스템 및 제어기기, 밀폐식 팽창탱크 및 순환펌 프, 차압유량조절 밸브(PDCV), 그리고 합리적인 열사용시설 운영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절기 대비 안정적인 열공급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 실 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관계자는 이번엔 실시하는 『지역난방 사용자 설명회』는 기계 실 관리자 등과 접점활동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서 비스 증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 명하고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2제강공장 누계 생산 2억톤 달성

포항제철소 2제강공장이 지난 5월 2일 조강 누계 2억톤을 달성했다.

2제강공장은 1978년 12월 8일 조업을 개시한 이래 27년 5개월만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초로 조강생산 2억톤을 기록, 새로운 제강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번에 달성한 누계 생산량은 2,000cc 자동차 2억대를 만들 수 있고, 선재제품으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2만 6,000회 감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2제강공장은 그동안 복합취련설비 도입(1986년), 진공탈가스설비(1기 1983년, 2기 1987년), KR용선탈류설비(2005년) 등 설비 증설·보완과 신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있는 설비 시스템을 확보했으며, 1998년에는 100% 연속주조 조업과 전로 3/3기 조업기술을 정착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 왔다.

특히 금년 12월 탈린 전용로 준공을 계기로 탈린용선 사용을 통한 저원가·고품질 기술을 개발, 세계 최고의 제강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강부는 2억톤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 2007 운동 전개를 통해 안정적 생산을 바탕으로 극한적인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8대 전략제품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생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주)

플랜트 부문 국내 첫 무재해 1,000만 시간 달성

두산중공업(주)의 당진 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이 플랜트 건설 현장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무재해 1,000만 시간을 달성했다.

두산중공업 김용묵 상무(당진건설사무소장)는 지금 5월 8일 당진화력 건설사무소에서 최부환 대전 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과 김용국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남지도원장으로부터 무재해 1,000만 시간 달성 인증패를 받았다.

무재해 시간은 '1일 근무인원×근무시간×무재해일수'로 산정하는데, 당진화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는 2002년 7월 1일 착공하여 지난 3월 31일 준공할 때까지 3년 9개월 동안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소에서 대형 중량물을 취급하는 위험작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표적인 플랜트 건설공사인 당진화력 건설현장의 이번 무재해 1,000만 시간 달성은 획기적인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묵 상무는 "그동안 수많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안전관리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안전활동 시스템(P.C.K System)을 자체 개발하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적용함으로써 무재해 1,000만 시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서 "내년 7, 8호기를 완공할 때까지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주)

유럽 최대 건설장비전시회에서 대규모 물량 수주

현대중공업(주)는 지난 4월 26일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인터마트(INTERMAT)」 건설장비전시회에서 장비 620대를 4천2백만 유로(EUR), 약 490억원에 판매계약을 맺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인 굴삭기, 휠로더를 비롯해 미니굴삭기, 스kid로더 등 장비 22대를 전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행사 현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인터마트(INTERMAT)」 전시회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160개국에서 21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유수의 건설장비 업체와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 제품의 우수성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건설장비 신모델들은 유럽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Tier 3엔진』을 장착해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으며, 성능과 운전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주)

세미나 · 교육 등 다목적 활용 『오름 홀』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주)는 지난 4월 5일 이종화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강당 『오름 홀』 개관식을 가졌다.

『오름 홀』은 사내 각종 세미나와 교육, 회의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본사 지하 1층에 마련한 다목적 강당으로, 총면적 약 90평에 A홀은 136석, B홀은 42석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필로시 A, B홀 간의 무빙월을 이동하면 178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각 홀에는 프로젝터 시설과 화이트보드를 포함한 음향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각종 세미나와 교육실로 손색이 없다. 특히 B홀에는 개인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전산교육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종화 사장은 개관식사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향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리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하고 상승세를 몰아 정상에 오르는데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는 수련장소로 『오름 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름 홀(O-Reum hall)』은 사내 공모를 통하여 토건·환경사업본부 안남규 사원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주)E1

‘Life Energy’ 주제로 고객생활 활력 광고 캠페인

친환경 에너지(LPG) 전문기업인 (주)E1은 고객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로 ‘Life Energy’ 광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E1은 광고 캠페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축구 편’을 런칭함으로써 최근 독일응원패키지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건 태극전사 사기충전 페스티벌, 축구국가대표팀 승리기원 메시지를 담은 탱크로리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광고에서는 ‘차량의 LPG 충전’과 ‘생활 활력 충전’이라는 공통점에 착안해 연료 게이지 안에서 점차 충전되는 모습을 통해 ‘생활 에너지 충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승리의 기운 충전’과 ‘응원의 함성 충전’이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1개의 CF에 담아내는 Multi Spot 기법을 통해 ‘충전’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에너지기업들의 광고와는 명확한 차별성을 부각했다.



대성그룹

몽골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력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대성그룹은 지난 5월 9일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한 온수 및 난방 공급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특별협력프로젝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 및 국방부와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성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주)를 통해 울란바토르 시 근교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1년 동안 기상조건의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한 후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특별협력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대성그룹이 국내 최초로 몽골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공급 및 성공적 수출에 따른 또하나의 쾌거로 몽골의 수도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몽골내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10만호 보급사업과 솔라홈 시스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지공장 배기응축열 회수장치 세계최초 상용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 제지설비의 지붕으로 배출되는 습한 공기로부터 응축열을 회수하여 공정에 재활용하는 '유동층 응축형 열교환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치는 공정 특성상 많은 연료소비를 필요로 하는 제지설비에서 나오는 습한 공기로부터 응축열을 회수하여 다시 공정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열교환기의 세척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장치이다.

열효율과 유지관리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된 상용규모의 유동층 열교환기인 이 장치는 동양최대의 제지공장인 전주소재 노스케스코그(주)의 현장에 적용되어 3개월의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기술이 적용된 노스케스코그(주)는 설비 17기 당 연간 4억5천만원의 연료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 20개 정도의 중대형 제지공장에 적용할 경우 연간 450억원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외적으로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제지설비의 습한 공기로부터의 응축열회수 기술이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가능해져 에너지 절약과 이 분야



의 유동층 열교환기의 보급 및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

특허청과 에너지기술 지식재산권 창출 MOU 체결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과 특허청 전상우 청장은 지난 4월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신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체제 구축을 위해 기술정보 및 전문인력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 기획·평가에 협력하게 된다.

이로써 에너지관리공단과 특허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확대와 특허심사의 질적수준 제고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과 특허청은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의 점검과 추가 협력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고속 전철 추진제어장치 국산화 개발 성공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전기연구단 류홍제 박사팀은 (주)로템의 지원을 받아 (주)VCTECH과 공동으로 세계 4번째로 시속 350km/h 급 고속전철의 추진제어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류박사팀이 개발한 제어장치는 고속전철의 추진과 전기제동제어를 담당하는 고속전철의 핵심제어장치 중의 하나로서, 현재 프랑스, 일본, 독일 3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현재 프랑스·일본·독일은 고속전철 추진제어장치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박사팀은 이번에 (주)VCTECH과 공동으로 제어장치의 하드웨어까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고속전철 추진시스템의 국산화율을 100% 달성할 수 있었으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추진제어장치를 한국형 고속전철의 핵심제어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류홍제 박사팀이 개발한 이 추진제어장치는 대용량 관성부하 설비를 이용한 추진시스템통합 시험을 통해 이미 신뢰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장치는 5월초 실제차량에 탑재되어 현차시험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호남선에 투입되는 한국형 고속전철의 추진제어장치로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장치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는 100량 400대 기준 최대 약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5월 10일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중성자를 나노과학과 바이오 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을 원자력연구소 하나로 부지내 건설현장에서 가졌다.

냉중성자 실험동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냉중성자(cold neutron)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이를 중성자를 반사하는 특수한 유리관인 '중성자 유도관'을 통해 수송, 다양한 냉중성자 산란장치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대규모 실험동이다.

냉중성자 실험동은 냉중성자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나노 영역의 구조와 운동을 측정,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광범위한 기초과학 및 응용분야는 물론 나노과학, 바이오기술 등 21세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연구시설이다.

냉중성자 실험동이 가동되면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다양한 중성자 산란장치와 전문 인력을 구비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냉중성자 실험동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2004년 설계에 착수, 2005년 건설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 과학기술부로부터 냉중성자 실험동 건설 허가를 획득, 기공식을 갖게 됐다. 총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2007년까지 건설을 마친 뒤 정부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운영허가를 얻어 2008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범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범 30주년(통산 88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 국토 및 광물자원 조사를 위해 설치된 국공립기관인 지질조사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76년 자원개발연구소로 시작해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발족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번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초청인사와 선배 퇴직자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발전에 공로를 세운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이태섭 원장의 기념사 그리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의 축사,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격려사와 직원대표 2인의 'KIGAM인의 다짐'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심부지열 에너지개발 연구의 일환인 지열이용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한 지진연구동 준공식에서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 내외빈의 테이프 커팅에 이어 지진관제종합상황실 등 내부시설을 소개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

공작기계 고장 추적·진단시스템 국내최초 개발

국내 처음으로 공작기계의 고장원인을 실시간으로 추적·진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김동훈 박사팀은 최근 산업자원부와 터보테크의 지원을 받아 머신운용자, 보수관리자를 위한 공작기계 고장 추적 및 진단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공작기계가 생산라인에 설치되거나 주변기기 및 새로운 센서 등과 연계되면 자동으로 공작기계에 연결된 모든 입출력 신호의 상호연관성을 수식모델화, 어떤 고장이 나더라도 유연성 있게 고장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공작기계 제어기에 콘텐츠를 이식하면 원격지 통신까지 가능해 기계가 가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고장 유무와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기술개발에 따라 그동안 기계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는데 80%, 수리하는데 20%가 걸리던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의 개발로 고기능, 복합기능의 수준높은 공작기계를 생산할 수 있고 IT 공작기계 제품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술개발과 관련, 연구팀은 국내외 10여편의 논문발표와 SCI저널에 논문 2편을 게재했으며 소프트웨어 등록 6건 및 특허 1건을 출원했다.

김동훈 박사는 "연간 수조원의 공작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고기능 공작기계 제어를 선보일 수 있어 연간 7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5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내년 중 시스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유럽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개소 10주년을 맞아 독일 잘란트주 자부르크켄시에 위치한 KIST 유럽연구소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 권오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백흥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수혁 주독 대사, 게오르기 잘란트 경제성장관, 바르나케 프라운 호퍼 전 총재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및 유럽연구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은 격려사에서 KIST 유럽연구소가 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해외 진출 본보기였음을 치하하고 앞으로 'EU 우수연구기관 수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호 KIST 유럽연구소 소장은 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EU국가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한·EU Fusion Technology 센터'를 KIST 유럽연구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분야 표준시방서 도입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정책연구원은 최근 산자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1년간 수행한 전기공사분야 표준시방서 도입과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시방서 제정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시방서에는 시공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형식 및 품질 등급에서부터 조립 설치시 요구사항, 계약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계약시 단가·금액 수당에 관한 절차 등 프로젝트 관련자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도면 시방서에는 정보 중복 및 오류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의 표현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다.

시방서가 만들어지면 현재 각 발주기관 마다 보유한 다양한 시방서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고, 전기분야별 보유기술의 일반화로 전기시공업계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